



# 인스턴트 메시징 시장 세계를 누비다

국내 KT파워텔 합류 ... 중국 이어 하반기 일본·대만도 동참

먼 미지의 얘기로만 들리던 림의 '블랙베리' 서비스.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외신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것이 블랙베리였다. 휴대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휴대폰은 아니고, 메일 확인을 목적으로 GSM방식으로만 제공된다고 여겨지던 것이 블랙베리였던 것. 그러나 최근 국내 시장에도 이 서비스가 상륙했다. KT파워텔이 도입을 했다. 차이나모바일도 노키아와 손잡고 자국 시장에 블랙베리 서비스를 받아들였다. 대만과 일본도 하반기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글 | 박영주 기자(아이티타임스)

블랙베리 서비스는 주로 틈새시장 공략 용도로 사용된다. 도쿄모측이 서비스 도입과 관련 "비즈니스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나 KT파워텔 역시 비슷한 사용을 상정한 것 등이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블랙베리 서비스의 위력을 아직 실감하긴 곤란하지만 영어권에서 블랙베리는 쿼터 자판으로 인해 메일을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그 편리함으로 인해 인기를 누렸던 것.

세계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국내처럼 유선인터넷 망이 원활한 곳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도, 그 대체수단으로 블랙베리의 선호도를 높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상 외부에서도

메일을 주고 받을 일이 많은 사람에게 휴대의 편리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가져주는 것이 블랙베리 단말기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는 림의 블랙베리가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외신이 RIM(Research In Motion)의 회장 겸 공동CEO인 제임스 바르시리의 멘트를 빌려 전한 바에 따르면, 와이파이 기술과 휴대폰 기술 모두 탑재한 새로운 블랙베리 버전이 연내 출시된다.

기능 추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림은 조만간 MP3P·비디오·메모리 확장 등의 새로운 기능을 블랙베리 기기에

추가한다. 모든 블랙베리 기기에 GPS 기능을 삽입하는 건 기본.

또한 림은 향후 블랙베리가 아닌 여타 모바일 기기에서도 블랙베리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블랙베리 커넥트' 서비스를 미국에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블랙베리, KT파워텔 손잡고 국내 '첫발'

블랙베리의 세계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국내 시장 진출이다.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 사업자인 KT파워텔(대표 김우식 www.m0130.com)은 지난 5월 30일, 캐나다 RIM(Research In Motion, www.rim.com, www.blackberry.com)사의 블랙베리(Blackberry) 서비스를 한국에서 공식 출시했다.

KT파워텔은 블랙베리 서비스를 자사 무선기 서비스와 결합, '한국형 토탈 업무용 통신 솔루션'으로 기업부문에 제공한다.

KT파워텔의 김우식 사장은 "해외에서 500만 가입자가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활용하고 있고 비즈니스 솔루션으로는 가장 인기가 많은 블랙베리 서비스를 한국에서 처음 서비스 개시하는 데 대해 많은 자부심과 책임을 느낀다"며, "KT파워텔의 PTT(Push To Talk) 기능과 블랙베리의 강력한 이메일 솔루션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KT파워텔이 국내에서 처음 제공하는 7100i 블랙베리 단말기는 초기에는 한글과 영어가 공존하는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 즉 한글 읽기기능은 가능하나, 한글 쓰기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영어는 읽기/쓰기 모두 가능)

따라서, 초기에는 주한 외국기업 및 해외기업과 거래가 많은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제조·재무·금융·도소매 등 주한 외국인층이 주요 고객이 될 것이며, 유통·운송·공공안전 등의 업종에도 점차 파급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예상했다.

KT파워텔의 마케팅 총괄담당 손창호 상무는 "기존 TRS 사업이 '블루컬러·생계형'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 고양 및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블랙베리를 도입했다"며, "블랙베리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객편익위주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도 블랙베리폰 만든다

림의 전매특허로 불리는 블랙베리폰을 삼성전자도 만들까? 답은 '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국내 업체 최초의 '슬림 블랙베리폰(SGH-T719)'



을 'CTIA 2006'에서 공개한 적 있다.

두께 17.8mm의 폴더형 휴대폰인 삼성전자 '슬림 블랙베리폰'은 기존 PDA형 제품에 비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슬림 디자인이다.

쿼티(QWERTY)형 키패드를 적용했고 130만화소 카메라, MP3P, 블루투스, 음성인식, 모바일 IM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은 "첨단 기능과 차별화된 디자인의 명품 휴대폰으로 북미 휴대폰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호스트웨이드 무선 이메일 서비스 제공

블랙베리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인스턴트 메시징이론 호스트웨이IDC가 최근 시작한 스마트폰을 통한 프리미엄 무선 이메일 서비스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기업 또는 개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온 메일을 스마트폰(삼성전자 'SCH-M600')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답장/전달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특히 기업의 사무실에서 개개인이 이용 중인 PC와 완벽한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 PC에 저장돼 있는 주소록·일정·메모·전자메일 등 중요한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외 운영체제(OS)로 윈도 모바일 2003 SE 이상 사용하는 국내 스마트폰, 포켓PC(PocketPC), PDA폰은 기종과 제조사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1차 마케팅 타깃은 국내 외국계 기업과 금융권 기업,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K**